

새해를 맞는 자세

빌 3:13-14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결혼을, 취업을, 진학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결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심 외에도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새해를 맞는 남다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새해를 맞는 자세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가 달리는 중간에 뒤를 돌아보아 지체한다면 경기에 패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에 쥘 것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9:62). 바울은 과거의 공로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러한 공로 의식을 떨쳐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낙심될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13절)는 것은 이처럼 과거의 공로에 대한 자만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실의와 좌절과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까지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절 18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날의 기억들을 모두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향해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둘째, 꺾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14절에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은 앞에 있는 꺾대 혹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목표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 곧 영광스런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얻은 의(義)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 즉 ‘완전 성화’입니다.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잘한 일든지 못한 일든지 간에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는 지나간 날들에 잘못된 일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씻음 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자랑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성도는 오직 완전 성화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성경 교훈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셋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기는 승리와 한 사람만을 시상하지만 영적 경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열매로 축복을 받고 살다가 재림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계 21:2).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장차 더욱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것들은 되돌아보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난 것들을 모두 잊고 오직 꺾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귀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부름 ----- 인 도 자

모두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설날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28장 ----- 다 같 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끄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대 표 기 도 ----- 말 은 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빛의 자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다짐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환난 속에서도 상황을 뛰어넘어 영적인 안목으로
항상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빌 3:13-14 ----- 다 같 이

-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 14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특 별 찬 송 ----- 말 은 이

예배 시작 전에 정해진 한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

말 씬 ----- 새해를 맞는 자세 ----- 말 은 이

설교문은 뒷면에 있습니다.

축 복 기 도 ----- 다 같 이

각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품에 안거나 손을 잡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한 후에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 송 ----- 찬송가 429장 ----- 다 같 이

1.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2.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없이 항상 찬송 하리라
3.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 하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후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주 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눔 ----- 다 같 이

※ 본문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가족끼리 함께 대화해봅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 1) 올 한해 목표하고 바라던 기다리는 일이 있으셨나요?
- 2)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간증을 나눠주세요.